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7월 17일(금)
...(음력 5월 27일)...
Пятница
17 июля 2020г.
№ 28 (116895)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7월15일(수)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의 주최로 하바롭스크 안과연구소 전문가들이 50세 이상의 60명 한인동포들의 시력을 무상으로 검진했다.

(이예식 기자 촬영)

7월 15일부터 러시아 내 체류 의무 격리 불필요

7월 15일부터 러시아 연방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은 2주 간의 의무격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사할린 입도자에게 코로나19 검진 음성 판정의 증명서가 없으면 3일간에 걸친 검사를 진행한다고 이에 러시아 위생국장 안나 포포바가 서명했다.

외국인들에게는 러시아 국경 통과 시 러시아어로나 영어로 의사 진단의 코로나19 검진 음성 판정에 대한 전염병 위생 감독을 시행하는 책임자를 밝혀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는 러시아 도착하기 전 3일 이내로 종합 효소 연쇄반응 방법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확정해야 하고, 병원 서류들은 면역글로불린G 항체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공식 법률 정보 포털 사이트에 문서로 게시돼 있다.

앞서 타치야나 골리코와 러시아 부총리는 7월15일부터 국제선 재운항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입항은 코로나 19 감염 상황이 호전된 국가에게만 허락되며, 러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는 14일간의 의무격리 대신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이들 또한 코로나19 검체 검사 음성 판정에 대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럼에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안 좋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러시아인 중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의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14일간의 의무격리가 지속적으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사할린주, 6월에 주요 식품 세트 가격은 629993루블리

2020년 6월 사할린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00.2%이었고 이에 비해 2019년 12월에는 102.1%였다.

한 달간 식품 가격은 0.3%(2019년 12월 대비 3.8%) 상승, 비식품군 가격은 0.1%, 서비스 가격은 0.2%(2019년 12월 대비 1.0%) 상승했다.

6월 식품에서 소비자 물가 변동에 영향을 준 것은 콩과 곡물 가격의 상승(2.8%)이다.

쌀(3.8%)은 일반 가격이 오를 전망이고 귀리, 보리, 기장, 메밀, 만나, 완두콩, 강남콩 등의 가격은 0.6%에서 2.7%까지 상승했다.

다른 식품들 중 가격은 유아용 분유가 2.6%, 케이크2.1%, 요쿠르트 1.8%, 젤리와 초코젤리1.3%, 홍차1.1%, 달걀 0.9%, 마요네즈0.8%가 상승한 것으로 기록됐다.

육류 제품 중 가격은 육류 통조림이 2.4%, 냉장 및 냉동 닭고기1.0%, 뼈 돼지고기0.9%가 올랐고 어류 제품의 가격은 절인 청어가 2.6%로 크게 상승했으며 반제품 냉동 생선이 0.7%로 조금 올랐다.

반면 설탕 가격은 1.2% 하락했다.

현재 채소 가격의 상승은 무엇보다 지난해 추수하여 저장한 채소가 충분치 못해서 채소를 수입해 공급 한 것과 연관돼 있다. 6월에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지역 농산

물인 감자 가격이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지역 농산업체의 감자 부족으로 다른 지역과 국가에서 감자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할린주에 새로 수입한 감자 가격은 평균 1kg당 150루블에 달했다.

채소 가격은 당근 5.7%, 비트 4.7%, 토마토 2.2% 상승했고 반면 가격이 하락한 채소는 양배추, 양파가 0.8%, 마늘은 1.6% 하락했다.

과일 가격은 사과가 1.2%, 바나나 0.9% 상승했고 반면 가격이 하락한 과일은 레몬이 13.3%, 오렌지 2.4%, 배 1.1%로 낮아졌다.

비식품군의 가격은 세척 및 육식 세제가 3.5%, 화장품이 1.8%, 여성 긴양말은 1.4%, 담배는 1.1%, 의약품은 0.8%, 여성용 신발 0.7%, 전자제품 0.6%, 남성과 여성, 아동 의복0.5%, 침구류 0.4% 올랐다.

연료 중 한 달간 경유의 평균가격은 0.7% 상승하여 리터당 평균56.57 루블리였고 자동차 휘발유 가격은 0.4% 상승(리터당 51.14루블리), AI - 95 휘발유는 0.5%(리터당 51.40 루블리), AI - 98은 0.4%(리터당 54.54 루블리), AI - 92는 0.3%(리터당 49.25 루블리) 올랐다.

(3면에 계속)

단신

7월15일, 코로나19 새 확진자 60명

7월15일, 사할린에 하루 코로나19 감염으로 60명이 확진. 감염 요인은 호흡기 병동 방문자 31명, 이전의 확진자와 접촉으로 29명이 확진 46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 사할린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총1618명 중 7월 15일 기준 747명이 회복되어 퇴원했으며, 871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 정부에서 보고했다.

북조선 노동자 건설 현장에서 추락, 병원에서 사망

지난 7월 15일 00시55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경찰 수사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노동자 김 모씨(39세)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 첸트랄 나야 거리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었지만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고 전했다. 현재 사건에 대한 조사 중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 모씨가 근무하던 회사의 책임자에게 형법 143조 2항에 따라 부주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로 조건 위반에 대한 평가를 할 예정이다.

주지사, 사할린 세관 국장과 만남 가져

7월 15일(수)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새로 부임한 안드레이 벨라예브 사할린 세관 국장을 만나 사할린 대외 경제사업에 대한 전망과 국경에서 법률 준수 문제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현재 세관국은 현 정부와 경제, 관광,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하여 사할린의 대외무역 발전과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승객과 화물이 증가하는 시기에 세관국과의 협력은 큰 의미를 지닌다며 세관국의 사업으로 사할린과 러시아 연방 전체에 경제적이익이 지켜지고 있다고 치하했다.

안드레이 벨라예브 세관 국장은 사할린의 대외경제사업에 세관국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며 2020년에는 390건의 위반 사건 적발, 세관 위반으로 3천만 루블리의 벌금 추징, 밀수출입 사건으로 7건을 적발했다며 사할린의 세관국은 11곳으로 증가했고, 8월3일은 세관국 창립110주년으로 기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안드레이 벨라예브 세관국장은 올해 6월 22일부터 사할린 세관국에서 근무.

새고려신문

2020년 하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7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풍물 리듬을 보급하는 <하늘>그룹 한국에서 전문적 연수를 지속적으로 받는 게 소원

<2020, 러시아 대학생의 봄> 축제의 사할린 지역 단계 축제가 지난달에 사할린국립대학에서 진행되었다. 수백 명의 대학생들은 무용, 음악, 언론, 노래 등 부문에서 경쟁했다.

이 경연대회에 사할린 한인 문화센터 소속 <하늘>그룹의 두 팀이 참가했는데 <중소 악단 연주>부문에서 1등을 했고 본 경연 장르(연극, 춤과 노래, 개그)에서는 2등을 했다. 이 공연을 연출하고 감독한 사람은 <하늘>타악기그룹의 지도자 **송천석**(러시아 이름 알베르트) 씨다. **배순신** 기자는 사할린 젊은층에서 인기가 많은 <하늘>그룹의 송천석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 우선 <대학생의 봄 2020>에서 우승한 것을 축하합니다. 이 경연대회에서 어떤 작품을 발표했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사실 최근에 해마다 개최되는 <대학생의 봄>경연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우승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두 팀이 출연해 민속 악단 연주 부문에서 5명으로 구성된 공연팀이 2개 작품을 연주했는데 하나는 설장구, 또 다른 작품은 모두 북 공연이었어요. 무대에 앉아 전통적인 장구 리듬에 여러 작품들을 혼합해 연주를 했습니다.

- 한민족 타악기는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요?

- 2006-2007년도 제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제9동양어문학교 9학년이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우리 학교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 파견된 두 강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들 중에 나중에 제 스승이 되신 목진호 선생님도 계셨어요. 한국 강사들은 문화센터에 한민족 문화교실을 개설하고 민속악기와, 춤, 그리고 피아노도 가르칠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한 친구와 함께 피아노를 배워볼까 하는 생각으로 한인문화센터를 찾아왔는데 우리를 목진호 선생님이 마중해 주셔서 장구 수업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말을 잘 모르는 우리는 다른 악기 수업에 참석하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장구를 접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웃으면서).

- <하늘>그룹은 어떻게 창립되었고 왜 <하늘>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요?

- 장구를 배우다가 사물놀이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목 선생님께서 맨 처음엔 '불꽃'이란 이름을 지으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이름을 '하늘'로 바꾸었어요. 사물놀이 악기들의 의미 - 비, 구름, 번개, 바람 - 이 모두가 하늘과 연관돼 있어서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2008년 한국 부여에서 열렸던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에서 처음으로 <하늘> 이름으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 그룹으로 8명의 청년들이 공연했죠.

- <하늘>그룹 지도는 어떻게 맡게 되었어요?

- 우연히 되었습니다. 우리 동아리 친구들이 꾸준히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었는데 저는 성실한 제자가 아니었어요. 2008년 이후 한 2-3년 사물놀이를 포기한 적도 있어요. 그 당시 방향을 많이 했죠. 그때 신



송천석 씨 프로필
1991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출생.
교육사항: 사할린국립대 복지문화서비스 및 관광 전공
경력: 현재 <암비르스>회사의 상업부 직원, 동시 개인업을 하고 있음.
미혼. 연애 중.
주지사, 사할린청소년부 등 감사장 및 표창장 수여자.
<사할린 대학생 봄> 최우수상 수상자 등

인가, 김 이라, 로마노와 나스짜, 조파냐, 김 남스짜, 라브료노와 나스짜 등이 그룹 활동을 열심히 했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파견강사 사업을 종료한 이후 <하늘>은 아무 전문적인 지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그룹을 지키고 지도하는 역할을 신 인가가 맡았죠. 얼마 후 저도 함께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공연 연출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오래 고민하다가 이렇게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북과 장구를 가르치게 되었고 사물놀이에 폭 빠졌죠.

- 현재 <하늘>은 어떤 그룹인가요? 공연은 많이 하고 있나요?

- <하늘>은 한민족 민속 타악기를 진짜 좋아하고 이 방면에서 발전하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과 구성되고 있고요 학교 학생팀과 대학생팀 -두 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원이 줄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배우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할린을 떠나니까요.

그동안 다양한 경연대회에 참가했고요. 사실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해마다 <대학생의 봄>대회에 출전했고 극동지역 뮤직비디오 경연대회에도 참가했어요. 사할린의 <미스 고유성>, 전국 <고국의 아침>TV영화제의 개막공연, <자신을 알려줘>경연대회, <아시아 아이들>국제 청소년동계스포츠대회 행사, 한국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행사(2015), 제주 축제 등 정말 수많은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 <하늘>은 젊은층에서 정말 인기가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룹을 지방에서도 잘 알고 있고 지방행사를 할 때 <하늘>이 참가한다 하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걸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 우리 그룹은 전통 공연과 현대 공연을 하는 그룹입니다. 춤과 쇼 요소를 포함한 공연이라 관객들이 흥미를 갖고 볼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사실 우리 전통과 팝과 춤, 또는 바이올린 연주와 북, 장구 함께 하는 것 등 - 러시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멋진 공연을 위해 연습은 정말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공연을 앞둘 때나 명절 연휴, 또는 방학 때는 매일 최소 2시간이상 연습하고 있습니다.

- 그룹 <하늘>에게 문제가 있다면요?

- 가장 큰 문제는 악기와 의상입니다. 열심히 사용하다 보면 빨리 망가져요. 그동안 여러 번 장구와 북을 바꾸었죠. 이에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한국교육원, 한국에서의 여러 단체 등이 지원해주었지만 다수는 우리가 직접 돈을 모아 벌어들여 구입하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현재 신 인가 지도자가 둘째 아이출산으로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동의로 자비를 들여 새 악기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공연을 위한 화려하고 예쁜 의상이 꼭 필요하기도 하고요.

- <하늘>그룹 지도자로서의 소원과 앞으로의 계획은요?

우리의 소원은 항상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전문적인 연수를 시키는 일입니다. 사실 실력을 늘리기 위해 옛날에 우리 팀원들이 자기 돈을 들여 한국의 이름난 사물놀이 장인들을 찾아가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해마다 한국에서 연수를 했으면 합니다. 올해는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진도국악원에서 연수할 기회가 생겼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번 연수는 못하게 됐어요. 아무튼 앞으로 발전을 위해 꼭 연수가 필요하고 계획은 좋은 공연으로 관객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모든 꿈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이 모 저 모

'부메랑'클럽, 물 축제에 초대

"부메랑"클럽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비롯한 10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들을 초청해 물 축제를 여는 가운데 행사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나이차 호수의 "솔네츠닉" 해변에서 개최한다. 물 축제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후4시까지 집합 장소로 모여야 한다.

체험장에는 카약, 서핑보드, 모터 및 일반 요트, 물가에서의 안전과 구조 등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적인 종목에서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체험장 참가는 무료이며 참가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17세 이하는 반드시 부모와 동반해야 하며 축제 구역에서 음주나 음주 상태에서 행사장 방문은 금지된다. 물 축제 참가 시 참가자들의 의복이나 소지품이 젖을 수 있으므로 여분의 옷과 신발, 잠수복, 수영복을 챙겨와야 한다. 주최측은 여행용 깔판, 좌판, 선글라스, 선크림, 간식과 컵을 비치하고 오길 권하고 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변에 남겨지는 개인 물품 보관은 스스로 보관하도록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메랑'클럽 근무시간에 전화8-914-746-95-32, 300-506로 문의할 수 있다고 부메랑 클럽 홍보 담당이 전했다.

"부메랑" приглашает на в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Клуб "Бумеранг" приглашает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семьи с детьми старше 10 л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водном фестивал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25 июля на пляже "Солнечный" озера Тунайча с 11 до 17 часов. Желающи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водных станциях должны прибыть на место не позднее 16 часов.

Участников ждут увлекательные и активные станции: каяки и сап-борды, моторные и парусные суда, безопасность и спасение на воде. Все станции работа-

ют бесплатно. Запись для участия не требуется.

Дети в возрасте до 17 лет должны быть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родителей. Распитие спиртных напитк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фестиваля и посещение станций в состоянии алкогольного опьянения категорически запрещено.

При подготовке к фестивалю участникам необходимо взять запасную одежду и обувь, гидрокостюм (при наличии), купальный костюм, так как на водных дистанциях есть вероятность намочить вещи. Организаторы рекомендуют взять туристский коврик или сидуху, солнцезащитные очки, крем от солнца, многоразовую кружку и перекус. О сохранности личных вещей, оставленных на берегу во время прохождения станций, участники должны позаботить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Более подробно узнать о фестивале можно в клубе "Бумеранг" в рабочее время по телефонам: 8-914-746-95-32, 300-506,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Бумеранга".

사할린 주민들 말로에 부세 호수에서 환경정화의 날을 개최

7월 11일 말로에 부세 호수 구역에서 정기적 환경정화 활동이 이뤄졌다.

코르사코브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의 특별한 관심 속에 대중 휴식공간의 환경정화를 위한 출정은 두 번째다. 첫 활동은 6월 27일에 진행했고 수년간 쌓인 쓰레기를 하루 만에 치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정화 활동의 참가자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소셜네트워크에 환경정화 활동의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올리면서 사람들이 반응을 했다. 이 활동에 코르사코브의 지방 행정부가 협력한 가운데 환경정화 활동 참가자 수송을 위한 버스를 제공하고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도록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장갑과 수거 봉투가 제공되었고, 코르사코브의 아마추어 잠수부들이 멀리 떨어진 호수 해안가 뿐 아니라 호수 밑바닥까지 청소하

는 작업은 지난 활동과는구분되는 작업이었다.

"호수 밑바닥에서 우리는 금속 캔, 유리 및 플라스틱 병, 그물 조각, 부러진 낚시대 등 다양한 쓰레기들을 발견했다. 이런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 수역 청소는 반드시 돕도록 하겠다."고 위탈리 플레쉬코가 밝혔다.

코르사코브 지역에서의 환경정화 활동은 계속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Сахалинцы провели субботник на Малом Буссе

Очередная акция по очистке территории озера Малое Буссе прошла 11 июля. Это уже второй выезд неравнодушных жителей Корсаков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 целью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место массового отдыха. Первая акция состоялась 27 июня. Но убрать накопленный за много лет мусор в один день было невозможно. Поэтому добровольцы решили привлечь к участию в уборке всех желающих, разместив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информацию о времени и месте проведения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субботника. И люди откликнулись.

Содействие в проведении акции оказал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предоставив автобус для доставки участников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субботника из Корсакова, а также организовав вывоз собранного мусора.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обеспечили перчатками, мешками. Одним из отличий прошедшей акции стало привлечение корсаковских водолазов-любителей, которые не только очищали берег озера в труднодоступных местах, но и его дно.

— На дне озера мы нашли самый разнообразный мусор — металлические банки, стеклянные и пластиковые бутылки, обрывки сетей, пакеты, сломанные удочки... В подоб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мы участвуем впервые, но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ем помогать в уборке водоемов в будущем, — рассказал дайвер Виталий Плешко.

(8면에 계속)

사할린, 제70회 한국어 능력시험에 39명 응시

지난 12일(일) 사할린 한국교육원(원장 이병일)에서 제70회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이 실시되었다. 해마다 몇 차례 시행되는 이 시험은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 결과는 한국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사할린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1년에 한 번 치르고 있는데 올해 4월에 예정된 능력시험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7월까지 미뤄졌다. 시험 등록 신청은 65명이 있었으나 여러 사유로 이번에 TOPIK I(초급)에는 29명, TOPIK II(중·고급)에는 10명이 응시했다.

이병일 원장에 따르면 이번에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사할린에서만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했다.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 사할린에서도 한국어 능력시험을 취소할까 고



민 끝에 응시를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해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이 원장은 덧붙였다.

이번 한국어 능력시험 감독은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출장소 직원들이 맡았다.

시험 결과는 8월 20일경에 발표된다고 전해졌다.

(취재: 배순신 기자)

재러 한인 과학기술자협회, 청소년 국제학술회 · <2020 오늘의 힘>국제 청년 포럼 개최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청년 과학 컨퍼런스와 오케이프렌즈(OK'Friends) - <2020 오늘의 힘 The Power of Today 2020>이 국제 청년 포럼이 온라인상에서 개최되었다.

컨퍼런스는 재러 한인과학기술자협회(AHTOK)과 모스크바 한인 청년운동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다.

주최 측은 이번 컨퍼런스의 2가지 목적을 밝혔다.

- 한인 청년들 가운데 과학적 사업의 대중화 - 학부 대학생,대학원생, 준박사 및 졸업생
- 전망이 높은 아이디어와 결과를 상호교류하는 행사 조직을 통해 과학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러시아 한인 공 통체의 강화와 확대에 있다.

올해 청년 국제학술회에는 온라인상임에도 불구하고 4개국(러시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등)에서 60여 명이 참가했다.

학술 토론회와 세미나에는 러시아의 16개 도시(아르한 겔스크, 발라쉬하, 블라디보스토크, 보로네즈, 예카테린부르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칼리닌그라드, 모스크바, 로스토브-나-도누, 상트페테르부르크, 사라토프, 톰스크, 우수리 이스크, 하바롭스크, 엔겔스, 유즈노사할린스크 등)들과 4개국의 28개 대학 대표들이 참가했다.

(본사기자)

사할린주, 6월에 주요 식품세트 가격은 6,299.93루블리

(1면의 계속)

서비스업에서 가격은 예식 서비스가 3.4%, 체력 단련 과정 2.5%, 호텔 숙박 2.1%, 통신 서비스 이용료 1.4% 올랐다. 소비자 물가의 변동으로 주요 식품군의 가격도 변동되었다. 이 식품 세트에는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식품들 33개 제품이 포함돼 있다.

2020년 6월 말 사할린주에 평균 주요 식품 세트 가

격은 6,299.93루블리로 한 달간 0.9% 상승했다(2019년 12월 대비 9.3%).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주요 식품 세트 평균 가격은 6152.38 루블리(월 1.3% 상승), 포로나이스크는 6228.11루블리(월 1.2% 상승), 코르사코브는 6213.50 루블리(월 1.1% 상승), 오히 7124.61루블리 (월 1.2% 하락) 라고 사할린주 정부에서 보고했다.

해외 가족용 마스크, 분기당 최대 90장 발송 가능

7월 13일부터...발송수량 1인당 36장에서 90장으로 확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정부의 마스크 수급정책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7월 13일부터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을 분기별 최대 90장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7월 10일 밝혔다.

그동안 내국인이 '주당 1인 3장'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기준에 맞춰, 한 번에 해외 발송이 가능한 수량은 최대 36장(3개월치)이었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의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한 '1인 1일 1장' 기준을 적용해 분기당 90장으로 최대 발송수량이 늘어난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종료에 따라 7월 12일부터 국내에서는 자유로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진 가운데, 해외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해외 발송 관리 기간을 기존 3개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3개월치를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만 추가 발송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분기가 바뀌면 추가 발송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2/4분기인 6월에 3개월치 36장을 발송한 경우, 3/4분기(7~9월) 이내라면 추가 발송분 최대 90장을 보낼 수 있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발송기준에 따른 Q&A 및 안내 자료를 작성해 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부터 7월 8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거주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607만6천여장이다.

(재외동포신문)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네모난 두개골

스무 살 여름, 방학이라 고향에 갔던 여자 친구가 놀러 온다고 해서 나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과외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꽃단장을 하려고 집을 향해 신나게 오토바이를 달릴 때였다.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유턴을 했다. 브레이크를 잡을 새도 없이 승합차 옆구리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어디선가 황! 소리가 들렸고 헬멧을 쓰지 않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팔월 한낮 아스팔트는 등이 익을 듯 뜨거웠다. 내 이마에서는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이 흐르고 있었다. 놀란 운전자 아저씨는 차에서 내리지를 못했다. 내가 비틀비틀 일어나자 겨우 차 밖으로 나와 피를 닦을 길에 같은 길 건넜다.

내 머릿속에는 기차를 타고 오고 있을 여자 친구밖에 없었다. 절대 바람 맞혀서는 안 된다. 병원으로 가자는 걸 거절하고 전화번호를 받은 다음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

피투성이 옷을 갈아입었지만 주먹만큼 부어오른 이마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다. 어지럽기도 하고 온 몸이 육신거려서 만나기로 약속한 커피숍에 전화를 걸어 여자 친구에게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여자 친구는 내내 울먹이다가 돌아갔고 나는 비틀대며 약국에 갔다. 약사는 당장 병원으로 가라 했지만 나는 어머니 몰래 사고를 수습하고 싶었다. 밤이 '되자 약사가 말한 대로 친구들을 불렀다. 친구들은 술을 마시며 놀다가 삼십 분마다 내 허벅지를 이쑤시게로 찔렀다. 아무 감각이 없으면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한다는 게 약사의 조언이었다.

내 비명이 높을수록 친구들 웃음은 커졌다. 밤늦게 어머니가 이층 내방으로 올라오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되었다.

급히 응급실로 실려가 사진을 몇 장 찍었다. 간호사가 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웃다가 야단을 맞았는데 의사 역시 사진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결국 나도 웃었다. 웃을수록 머리가 아팠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얼굴이 네모나면 엑스레이 사진도 네모나다는 걸 처음 확인했다.

사고 정황에 비해 큰 후유증 없이 끝나 다행인데 돌이켜보면 아찔하다. 몇 년 뒤 유라시아 횡단을 하려면 힘세고 튼튼한 오토바이를 사야하는데 아내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다. 내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겠다면 나 역시 말릴 게 분명한데 말이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북아프리카까지 넉 달 동안 오토바이 여행을 한 다음 바로 팔아 버리겠다고 하면 통할까?

광주에서 김남중

사할린, 28만 권 이상의 교과서를 구입

사할린의 학교들을 위한 28만 권 이상의 교과서가 구매되었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1학년-11학년생 모두에게 교과서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할린의 159개 학교들은 새 학기에 앞서 자체 도서관 서고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목적으로 사할린주 예산에서 1억2천만 루블리가 책정되었다.

"오늘 사할린 지역에 새 교과서 보급이 완료되었다. 교과서들을 현재 각 지방으로 배분하고 있다. 9월 1일 즈음에 모든 학생들이 교과서 세트를 받게 된다."고 사할린주 교육부 장관 아나스타시아 키티와가 밝혔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무료로 이용하게 되며 고학년생들은 정기 시험 후 교과서를 도서관에 반납해야 하고 다른 학년들은 학기 말에 반납해야 한다.

초등학생들에게는 학교 수업과 숙제를 위한 두 세트의 교과서를 보급할 방침이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위해 구입한 모든 교과서는 새로운 연방 표준에 부합되며

주 교육부는 학교 측의 요청으로 편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교과서를 구입하고 있다.

각 교육기관은 자체 도서관 도서를 분석하고, 책의 손상과 사용 기한에 따라 책을 복원하고 있다. 사할린주에서는 새로운 교육 표준으로 단계적인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나해 사할린 학교들의 도서관은 새로운 교과서 대여를 위해 예산이 2억4천만 루블리로 늘어났다. 이로써 35만 권 이상의 교과서 세트를 구매했다고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нят в МИД России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А.Рябков встретился с Чрезвычайным и Полномочным Посл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Ли Сок Пе по его просьбе.

Состоялс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й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по акту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вестки дня, включая ситуацию в сфере контроля над вооружениям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оссийског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Работодатели скорее не проиграли, работники скорее не выиграли

Национ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Южной Кореи установила минимальную часов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на будущий год в размере 8 720 вон (\$7,25), на 1,5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в этом году.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во вторник на девятом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комиссии по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 из девяти членов от трех сторон – работодателей, работников и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соци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Повышение стало самым небольшим со времени практики установления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 1988 году.

Переговоры в этом году были особенно напряженными ввиду экономических трудностей, истекающих от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то время, как профсоюзы подчеркивали важность поддержки низкооплачиваемых работников, работодатели призывали к смягчению финансового бремени на бизнес.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ботников первоначально предлагали повышение на 16,4 процента до 10 000 вон, а работодатели настаивали на снижении на 2,1 процента до 8 410 вон.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голосованием.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комиссия должна представить новый размер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министру труда, который затем должен объявить его публично до 5 августа.

Новый размер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1 января.

ИА РУСКОР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Молодеж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АНТОК 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OK'Friends — The Power of Today 2020

С 1 по 5 июля 2020 года в формате онлайн прошли Молодеж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АНТОК 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OK'Friends — The Power of Today 2020.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ференции –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АНТОК»,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Как заявля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целями конференции являются:

- популяризация научной работы среди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 студентов бакалавриата, магистратуры, аспирантов и выпускников вузов;
- укрепление и расширение сообщества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занимающихся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путем организации площадки для взаимного обмена перспективными идеями и результатами.

В этом году молодеж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несмотря на онлайн-формат, объединила около 60 участников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Россия, Израиль, Казахста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научных дискуссиях и семинара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28 вузов из 4 стран и 16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Архангельск, Балашиха, Владивосток, Воронеж, Екатеринбург, Красноярск, Калининград, Москва, Ростов-на-Дон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Саратов, Томск, Уссурийск, Хабаровск, Энгельс,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насыщ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было приглашено более 10 спикеров из ведущих научных центров и университетов (Сколково, LG Chem, IT Академия Samsung, ДВУПГС, ТПУ, НИУ «МАИ» и др.).

За пять насыщенных дней работы конференции участники узнали о современном состоянии и развитии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об эволюции сетей связи и преимуществах технологии 5G, о комплексных нейросетевых алгоритмах анализа данных на изображениях и видео, о научных разработках LG Chem и Samsung, а также получили ценные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занятию нау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общаются на сайте НТО АНТОК.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конференции:

- биотехнологии, химия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 физика, математика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

логии;

- инженерные науки,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и науки о земле.

В работе конференции в качестве одного из спикеров выступила Юлия Дин,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БУК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Тема ее выступления «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 пример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оклад Юлии Дин отличался большой актуальностью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назад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п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инятый парлам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9 апреля 2020 г.

Доклад был посвящен важному вопросу иммиграции, «возвращению»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По общим принципам, мы можем говорить, что групп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убэтническая, как общая часть русскоязычной диаспоры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бывшего СССР) в силу различных причин уникаль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ути пользуется большим вниманием со стороны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е преимущества и льготы, которы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лучают от Южной Кореи, могли бы без всяких сомнений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массовой иммиграции данной группы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Ча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льзуется открывающимися возможностями, однако массовой миграции не наблюдается.

Происходит это по нескольким причинам, в том числе высокой конкурентностью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стратификацией общества, незнанием правил, языка, законов, традиций и т.д.).

Доклад вызвал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докладчику задавали вопросы. Вопрос возможной иммиграции для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или временной, для работы, учебы вызывает существенный интерес среди тех, кто думает или планирует совершить поездку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Основные тезисы доклада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сборнике материалов молодежного форума.

В Южной Корее отменили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родажу медицинских масок

С воскресенья (12 июля) в Южной Корее отменили вс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родажу медицинских масок.

Как говорится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м властя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явлении, с 12 июля маски будут продаваться в любых магазинах и без ограничения по количеству.

Напомним, что с конца февраля после вспышки COVID-19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ли введены разного рода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окупку масок. Их можно было приобрести только на основании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причем в строго определенный день недели, который можно было установить на основании последней цифры номера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Кроме того, первоначально один человек мог купить в неделю не более двух масок, а личные данные продавцы заносили в единую электронную базу,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купок в

разных местах более лимита. Затем ограничения были частично сняты: количество разрешенных для приобретения масок возросло до трех, а потом до пяти в неделю и купить стало можно в любой день.

Впрочем,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Корее уже давно не наблюдается дефицит с масками. Местн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а также импортеры,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смогли наладить поставки необходимых объемов данных средств медицинской защиты, был также создан значительный резерв на случай всплесков спроса. Маски можно было свободно купить и помимо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лимита, но за более высокую цену.

Власти РК все же предупредили, что оставляют за собой право снова ввести те или и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если этого потребует ситуаци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Выплаты пособий по безработице достигли в июне рекорд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РК, выплаты пособий по безработице составили в июне 1 трлн 100 млрд вон (916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62,9% больше, чем в ию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Это рекордная сумма за всю историю данных выплат. З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пособий подали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106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на 30 тыс. человек больше, чем год назад, а 711 тыс. человек получили пособия.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подписчиков на страхование занятости составила в конце июня 13 млн 870 тыс. человек,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1,3% процента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В 2020 году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будут жить более половины южнокорейцев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столичный регион, который включает города Сеул и Инчхон, а также провинцию Кёнги-до, станет домом для более чем половины 52-миллионного населения РК.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до конца года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составит 25 млн 900 тыс. человек, а на оста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будут проживать 25 млн 800 тыс. человек. Население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превысит население всех осталь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месте взятых впервые с 1970 года, когда начался сбор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данных. Большинство людей переезжают в Сеул и его окрестности в поисках работы и кач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ежду тем, населени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еула сокращается, поскольку сеульчане покидают столицу в поисках более дешёвого жилья в прилегающих районах. В 2019 году из Сеула в провинцию Кёнги-до переехали 96 тыс. человек.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Новый курс»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к 2025 году 1,9 млн рабочих мест

Проект «Новый курс», на реализацию которого предстоит потратить 160 трлн вон (130 млрд долларов),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1 млн 900 тыс.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ыступая во вторник 14 июля в своей резиденции с презентацией проекта, который призван помочь преодолеть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следствия пандемии COVID-19 и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эпохе после коронавирус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нвестирует в корейскую версию «Нового курса» 114 трлн вон. Остальные 46 трлн вон составят расходы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и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К 2022 году, когда истечёт пятилетний срок полномочий нынешнего президента, ег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ланирует потратить на создание 890 тыс. рабочих мест 49 трлн вон.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корейская версия «Нового курса» станет нов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для тех, кому нужна работа. Он назвал проект «декларацией превращения РК в быстро развивающуюся страну».

Пандемия COVID-19 может продлиться ещё один-два года

Пандемия COVID-19 может продлиться ещё один или два года, а коллективный иммунитет вряд ли возможен до появления надёжной противовирусной вакцин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в воскресенье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К Пак Нын Ху.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тестов на антитела к COVID-19, проведённых среди 3.055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ложи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выявился только у одного из них. Не только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но и всё южно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должны стремиться останов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ируса, чтобы достичь баланса между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ью и карантинными мерами, научившись сосуществовать с COVID- 19,-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Сеул заявил протест Токио по поводу притязаний на острова Токто

14 июля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стран Азии и Тихого океана МИД РК Ким Чжон Хан вызвал старшего советника-посланника посольства Японии в Сеуле Хирохису Сому, а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вое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К Ли Вон Ик вызвал военного атташе посольства Японии в РК Мацумото Такаси. Японским дипломатам был выражен протест по поводу содержания «Белой книги по обороне» за 2020 год. В документе, одобренном накануне кабинетом министров Японии, острова Токт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которые принадлежат РК, описаны как «спорные территории». Такое же определение дано принадлежащим России Курильским островам. Начиная с 2005 года, Токио предъявляет притязания на острова Токто в «Белой книге по обороне» и «Синей книге по дипломатии», что вызывает резкую реакцию официального Сеула. Относительно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новом издании «Белой книги» говорится, что она представляет угрозу, будучи способна атаковать Японию с помощью ракет с ядерными боеголовками.

Экспорт продукции ICT восстановился благодаря спросу на компьютеры

Южнокорейский экспорт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ICT) составил в июне 14 млрд 900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1%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экспорта способствовал рост спроса на компьютеры из-за увеличения числа людей,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дома. Зарубежные поставки компьютеров увеличились на 84,5%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составили 1 млрд 270 млн долларов. Одновременно экспорт дисплеев сократился на 5,2%, а смартфонов - на 10,6%. Поставки в Китай снизились на 1,6%, а в США – увеличились на 26%, во Вьетнам - на 5,7%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Импорт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оставил 8 млрд 960 млн долларов, а профит торгового баланса в данной области достиг 5 млрд 900 млн долларов.

Срок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экс-президенту РК сокращён до 20 лет

Высокий суд Сеула принял в пятницу решение сократить срок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для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ак Кын Хе с 30 до 20 лет. Это уже второе сокращение наказания для бывшего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 ию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апелляционный суд уже сокращал срок наказания для Пак Кын Хе. Она не участвует в судебных заседаниях, начиная с 2017 года, ссылаясь на плохое состояние здоровья, и отвергает все выдвигаемые в её отношении обвинения. Сначала её судили по нескольким делам в отдельности, н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ысокий суд Сеула решил объединить их.

(RKI)

В Сеуле простились с мэром Пак Вон Суном

13 июл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е простились с градоначальником Пак Вон Суном, который девятого июля покончил с собой. Процесс организации похорон расколол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учитывая, что смерть, скорее всего, связана с обвинениями в сексуальных домогательствах.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это у мэра осталось много сторонников и соратников, он сделал очень многое для улучшения жизни в главном городе Южной Кореи, а сам он запомнился как простой, добрый и общительный человек.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хорон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огранич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личного участия для граждан.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церемонии прощания, которая прошла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дня в понедельник, участвовали около ста человек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одственники, друзья и близкие покойного. Церемония транслировалась в прямом эфире.

После этого тело было кремировано, урна с прахом отправилась на самый юг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город Чхоннён, где покоятся его родители. В своей предсмертной записке Пак Вон Сун попросил прах развеять над могилой предков,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и будет сделано. Смерть такого яркого и популярного деятеля как мэр Пак Вон Сун шокировала корейцев. Он был очень популярен в народе, установил рекорд по длительности пребывания на посту градоначальника главного города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й занимал почти девять лет, сумев трижды подряд победить на выборах мэра.

Пак был известен как простой, доступный для общения, искренний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был всегда готов выслушать тех, кто обращался к нему. Хотя его называли в списке вероятных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но он, судя по его поведению, не гнался за этим и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лся на работе на благо столицы и его жителей. Ему стоит отдать должное: Сеул за время его правления преобразился, стал лучше и во многом изменился в сторону удобства жителей, пешеходов.

Пак прекратил практику сноса целых традиционных кварталов и возведения на их месте современных, но безликих небоскребов. Акцент делался на попытке сохранить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рейский облик.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отдают ему должное за то, что он своими решитель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не боясь идти на конфликт с влиятель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слоями общества, сумел не допустить вспышки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В политике он выступал с позици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начав работу как борец за права человека. Он открыто выражал свои взгляды, в том числе тогда, когда в политическом руководстве Кореи доминировали его политические оппоненты из числа консерва-

торов, чем сильно "досаждал" консервативным президентам Кореи, находясь на посту мэра столицы. Пак не скрывал своего негатив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экс-президенту РК Пак Кын Хе, что было видно по подходу мэрии в ходе анти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демонстраций, которые закончились импичментом и тюремным заключением для Пак Кын Хе. Попытки консервативных кандидатов победить его на выборах постоянно проваливались. Он так и ушел непобежденным.

Пак Вон Сун был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популярен, полон сил и планов, а потому его смерть стала настоящим шоком. Официально о причинах его добровольного ухода из жизни ничего не говорится, но накануне одна из секретарш подала заявление в полицию, обвинив его в сексуальных домогательствах, предоставив, как сообщили СМИ, и некоторы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На утро следующего дня Пак Вон Сун ушел из своей резиденции, отменил все мероприятия, исключил телефон, а в полночь с четверга на пятницу его тело было обнаружено в одном из парков на севере Сеула. Ожидается, что адвокаты женщины-секретаря, которая выдвинула обвинения против Пак Вон Суна, озвучат в ходе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ее позицию. Сообщалось, что в ее адрес стали поступать угрозы от сторонников покойного мэра.

Все эт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раскололи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На сайт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оявилась петиция, которая призвала не хоронить его как действующего мэра, снизив масштаб церемоний. Многие указывали, что он обвинялся в домогательствах. Петиция собрала более 550 тысяч подписей. В то же время более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выразили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а более 20 тысяч лично пришли попрощаться к специальному алтарю, который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в течение трех дней на площади перед мэрией. Некоторые политики демонстративно отказались выражать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тогда как другие пришли лично. Хватает и тех, кто призвал не превращать похороны в очередной повод для политических склок, а просто спокойно провести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процедуры прощания с усопшим.

В любом случае суд в конце концов отвел доводы оппонентов и постановил, что Пак Вон Сун может быть похоронен с почестями, которы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для мэра города, ушедшего из жизни во время исполнения обязанностей. Корея потеряла яркого, светлого деятеля. Трудно сказать, что было в его личной жизни, но мэр Сеула Пак Вон Сун запомнился как искренний, честный человек, которому лучше всего подходит эпитет "трудяга" и который много сделал для улучшения жизни жителей столицы и за ее пределам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ужесточили правила въезда для четырех стран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обнародовали список стран, в отношении которых с 13 июля ужесточились правила въезд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РК). Это Казахстан, Киргизия, Бангладеш и Пакистан. Отныне для тех, кто прибывает в Южную Корею из этих государств,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на руках официальное заключение медиков о том, что въезжающий сдал тест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и он отрицательный. При этом справка должна быть получена не ранее, чем за 48 часов до вылета в Корею и только из тех учреждений и клиник,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изнаны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ми РК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транах.

Данная справка, впрочем, не освобождает от мер проче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нтроля, которы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абсолютно для всех, кто прибывает в Южную Корею из зарубежья, включая самих корейцев. Приезжающие должны в течение трех дней сдать повторные тесты на COVID-19 и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их результата обязаны находиться на карантине в течение 14 дней.

Ранее сообщалось, что в отношении четырех стран вводятся и другие ограничения. Загрузка салона должна быть не более 60 процентов, количество чартерных рейсов сократят. Будут ужесточены и правила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ения для повторного въезда в

Корею. С 13 июля экипажи всех морских судов, прибывающие в порты Южной Кореи, для схода на берег должны будут пройти обязательный 14-дневный карантин.

В Сеуле отметили, что они внимательно наблюдают за ситуацией еще в 11 странах мира, не исключив расширения списка государств, в отношении которых будут применены новые ограничения.

В ходе брифинга корейские чиновники признали, что их особенно беспокоит приток коронавируса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Только 12 июля из 62 новых выявленных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SARS-CoV-2, 43 были те, кто въехал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Их выявили либо прямо на пунктах контроля в аэропортах, либо в ходе тестов по месту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Власти РК отметили, что среди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их особенно беспокоит ситуация в Казахстане. За последнюю неделю более 40 процентов тех, кто ввез из зарубежья в Корею коронавируса, были прибывшими из Казахстана. Так, за период с 1 по 7 июля из 124 "иностранных" случаев коронавируса в Корею 53 пришли из Казахстан (43 процента), а за последнюю неделю июня из Казахстана въехало 50 зараженных.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87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храняется масочный режи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ребованиями управления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16 июля посещение торговых точек, зрелищных, пуб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будет допускаться только при наличии средств защиты. Данная мера нацелена на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Требование носить маску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обязательно к исполнению уж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Однако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что все чаще стали встречаться факты, когда люди игнорируют эти правила. Кроме того, и в сам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не всегда требуют с посетителей обязательного исполнения данных мер.

— Маска является барьерным способом профилактики опасной инфекции.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Всемир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ересмотрела свои более ранние рекомендации в сторону обязатель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редст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Особенно это касается ситуаций, когда затруднено соблюдение социальной дистанции,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лечеб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Мила Тен.

Следить за соблюдением требований буд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В региональных ведомствах составлены списки сотрудников, которые имеют право проводить проверки и составля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отоколы в случае выявления фактов нарушения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Невыполнение правил во время действия режима повыше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влечет за собой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или наложени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штрафа. Денежное наказание для граждан — от 1 до 30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 от 100 до 300 тысяч рублей.

Контролирующие органы будут проверять соблюдение не только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но и иных мер, установленных в указе губернатора — например, рассадку в кафе, средства дезинфекции.

Потерявшие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работу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ют получать повышенное пособие по безработице

Решение о продлении выплаты приня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одписа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Минимальная величина пособия по безработице увеличена с 1500 рублей до 4500 рублей на период с мая по август 2020 года включительно. Тем же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одлена на август выплата пособия по безработице в размере 12 тысяч 130 рублей гражданам, потерявшим работу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вшимся в службе занятости.

Минимальное пособие по безработице получают впервые ищущие работу, длительно не работающие граждане, а также те, кто проработал меньше 26 недель за последние 12 месяцев или был уволен за нарушение трудовой дисциплины. Выплата в размере 12 тысяч 130 рублей положена потерявшим работу и признанным безработными после 1 марта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тех, кто был уволен за нарушение трудовой дисциплины или другие виновные действия).

Напомни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мер пособия по безработице увеличива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рименяемого районного коэффициента. Для Охи и Ноглик размер районного коэффициента составляет 1,6, дл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2,0, для остальны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 1,4.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здается единая транспортная схема

Поручение до 15 августа разработать комплексный план развития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д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вая схема позволит пассажирам выбирать оптимальный путь из района в район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различных видов транспорта — авиационног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морског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что комплексное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островов подразумевает не только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дорог, но и развитие малой авиации, движение скоростных поездов, круглогодичные морские перевозки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составляющие.

— Если люди смотрят на дороги, как на единственный способ добраться из пункта А в пункт В, то нельзя говорить о полноценном повышении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Нужно иметь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варианты. К примеру, если мы хотим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ехать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у нас должен быть выбор: полететь на самолете, отправиться на поезде или на автобусе. Сейчас создается единая транспортная ка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ем-то она напоминает схему метро,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иобретут два самолета малой авиации. Планируется возобновить работу аэродромов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и Зональном. В дальнейшем малые воздушные гавани заработают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 для этого восстановят сеть советских аэродромов. Такую задачу региональн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губернатор поставил на ближайшие два года.

Что касается мо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то уже близится к

завершению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вух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их судов на Невском заводе под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ом. «Адмирала Невельского» спустили на воду в конце мая, спуск «Павла Леонова» планируется 20 июля. Заверше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ервого намечена на декабрь 2020 года, второго — на середину 2021-го. Суда усиленного ледового класса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а Курильской линии.

Еще два парома строятся на Амурском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м заводе в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 Ожидается, что работу на переправе Ванино-Холмск они начнут в 2022 году.

Сегодня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еще схема морского передвижения по западному побережью Сахалина. Для этого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ретения малых судов на подводных крыльях или на воздушной подушке. Такой транспорт способен развивать скорость выше 60 километров в час и в незамерзающих водах на юге острова может работать круглогодично.

Комплексный подход к повышению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затрагивает такж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е сообщение. После перешивки узкоколейки на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стандарт упор будет сделан на обновление подвижного состава и увеличении скорости передвижения.

Пассажиры смогут приобретать единые билеты и пересаживаться на различные виды транспорта, чтобы по самым быстрым и комфортным маршрутам перемещаться из района в район. При этом движение автобусов будет синхронизировано с прибытием самолетов, поездов и судов.

Пассажиры смогут покупать билеты несколькими удобными способами: в Интернете, через колл-центр или в кассах.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запустить интерактивную карту-схему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ципиально новый подход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 также к содержанию автомобильных трасс.

— Появилась трещина, выбоина — нужно ремонтировать сразу, а не ждать весны. Зимой это,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стоит больше,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дорожке всего выходит, когда работа сделана несвоевременно,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новым стандартам будут содержаться и грунтовые дороги. Пилотным районом в этой работе станет Невельский. В дальнейшем этот опыт распространят на остальны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ной бюджет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будут планировать с учетом повышенных требований к содержанию дорог.

В загородном лагере «Юбилейный» дали старт летнему отдыху

На первую смену сюда прибыли дети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области. Учитывая особые условия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ринял 13 июля 110 юных островитян вместо планируемых 200.

Сделано это на основании новых требований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к работе детских 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лагерей. Количество отдыхающих в учреждении сокращено на 45 %. При этом все мероприятия планируют проводить только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Работу кружков и занятий по интересам организуют так, чтобы максималь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социальную дистанцию между отдыхающими.

— Безопасность детей — прежде всего.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в этом году работа детского лагеря будет сопровождаться рядом ограничений,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учреждения Андрей Лендов. — В числе основных — обязательный одномоментный заезд и выезд детей на смену. После этого ребятам и персоналу нельзя будет покидать лагерь. Для безопасности детей родители не будут приезжать к ним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отдыха. Обеспечено постоянное дежурство медработника, организованы регулярные замеры температуры.

Загородному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му центру «Юбилейный»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а пришлось с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всю летнюю кампанию 2020 года. Вместо четырех летних смен,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о три. Всего в период летних каникул на базе «Юбилейного» смогут отдохнуть 330 юных островитян. Следующая смена пройдет с 1 по 17 августа.

Как сообщалось ранее, с 26 ма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ешла к третьему этапу снятия ограничений. Это позволило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первому в стране — с 1 июня — начать летнюю оздоровительную кампанию.

Школьникам, которые не смогли по объективным причинам попасть в областные загородные лагеря, предложат путевк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Альтернатива — отдохнуть до конца лета на базе лагерей днев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ю по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ам: 8(4242)46-59-62, 46-59-75.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благодарил волонтеров и всех неравнодушных сахалинцев, которые участвовали в поисках Вики Тепляковой

Глава региона 13 июля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ахалинск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помощи пропавшим и пострадавшим детям «СОВ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к спасательному отряду примкнули более 500 волонтеров. Добровольцы круглосуточно на протяжении четырех дней занимались поисками пропавшей 8-летней девочки. Многие из них спали всего по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В надежде спасти ребенка они прочесали многие километры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Эти поиски стали одними из самых масштабных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 К огромному сожалению,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трагически. Но все равно в вашем лице я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сех волонтеров, кто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поискам Вики.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живут по-настоящему неравнодушные люди. Работа поисковиков очень значима и ценна, поэтому мы хотим предложить усил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готовы оказывать вам всяческое содействие, чтобы помочь в поиске пропавших людей,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уководитель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отряда Евгения Тучков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СОВА» 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существует с 2015 года. Отделения работают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о и в Охе, Тымовском, Смирных, Холмске, сейчас планируют открыть их в Корсакове и Долинске.

На счету добровольцев —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операций по спасению пропавших людей, в том числе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В постоянном активе отряда — 30 человек. 28 волонтеров прошли обучение по программе поиска пропавших людей, сегодня идет набор новой группы добровольцев.

«СОВА» работает в тесном контакте с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ям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агентствами — по делам ГО и ЧС и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а также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и.

— Когда поступает сигнал, у нас норматив — 50 минут на сборы. Уже через полчаса с момента сообщения 30 человек на всю ночь вышли искать Вики. Потом дали людям два часа отоспаться. И утром начали поиски снова. В первый же день к этой групп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сотни человек, — поделилась Евгения Тучкова.

Во время разговора губернатор спросил о том, какая помощь требуется поисковикам. Волонтеры рассказали, что у них нет штаба, где они могли бы собираться. Также поисковики попросили помочь с приобретением шатра-палатки для работы в полевых условиях и цветного принтер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первому заместителю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ю Байдакову, руководителю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зять эти вопросы на контроль и скорейшим образом их решить.

Отметим, что сегод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помощ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 органам сформирована система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происшествий и выявления нарушителей. Это, в частности, аппаратно-программный комплекс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система «112», кнопки вызова экстренной помощи, установленные на улиц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в Управлении 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и, что в этот раз им удалось выйти на след преступников благодаря анализу изображений с установленных в городе камер.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очередной сезон проекта «Коньки в школу»

Важную социальную инициативу реализуют в регионе уже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Уникальность проекта в том, что он не зависит от времени года и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На средства, выделяемые региональными властями, организована доставка школьников до места тренировок и обратно, работа тренеров, а также прокат необходимой экипировки — коньков и полного комплекта защиты.

— За всё время, проект помог встать на коньки более чем 1200 учащимся младших класс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еще 320 мальчишек и девчонок уже делают первые шаги на льду,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Юным сахалинцам помогают освоить езду на коньках тренеры из центра хоккейного развития «Арена Мастер».

— Мы учим ребят правильно стоять, отталкиваться и многому другому. Обычно, половина из приходящих к нам вообще никогда не надевала коньки. Но уже к концу первого занятия ребята начинают уверенно держаться на льду, а спустя пару тренировок спокойно катаются, — пояснил тренер Кирилл Громов.

Занятия для учащихся бесплатные, проходят дважды в день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 пятницу с соблюдением всех мер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в условиях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одной тренировки — 45 минут.

—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кататься. Я тренируюсь уже третий год. Сейчас хорошо освоила катание и теперь учу стоять на коньках свою подругу. Сегодня она впервые пришла на каток, — рассказала уче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школы № 19 Наталья Панчухина.

В план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расширение географии проект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к нему должны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школьники из Холмск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러, 코로나 이후 대비 미래차·바이오 협력 추진 산업부, 7월 2일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수석대표간 화상회의' 개최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해 미래 자동차와 의료·바이오 등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박기영 통상차관보와 러시아 알렉산드르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은 7월 2일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수석대표간 화상회의'를 갖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이날 양측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논의가 지연된 양국 간 협력 의제들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밸류체인과 협력·신산업 협력 확대 등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한-러 간 LNG바지선 건조 계약 체결, 자동차 엔진공장 기공식 개최 등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며, 자동차·조선·항공·금속·농기계 등 분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성과를 새롭게 창출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율주행차 협력 확대, 수소차 협력, 소재·부품 공동 연구개발(R&D), 영상진단정보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사항들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박기영 차관보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협력 추진과 협력관계 제도화를 위해 장관급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한-러 산업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제조업·신산업 협력 확대, FTA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보는 양국 경험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향후 한국 기업인의 출입국 등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통상차관보와 러시아 알렉산드르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은 7월 2일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수석대표간 화상회의'를 갖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협조를 당부하고, 양국 간 온라인 상담회 개최 등 비대면 기업 교류 지원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모로조프 차관은 장관급 산업협력 대화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조업 육성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추진 중인 러시아에게 한국은 핵심 협력 대상국 중 하나"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국 간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양측은 이날 논의된 협력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하반기 제10차 산업협력위원회 개최와 양국 고위급 교류 등 계기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나가기로 했다.

'2차대전 시기 고려인동포들의 참전과 노동협력' 주제 학술대회 개최

쑤려시아 고려인연합회 주최 .. 6월 17일 모스크바 시립 민족회관서 코로나19 감염 막기 위해 화상 채팅 플랫폼인 줌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열려

전(全) 러시아 고려인연합회에서는 6월 17일 '대조국전쟁(세계 2차대전) 시기 고려인 동포들의 참전과 노동협력'을 주제로 모스크바 시립 민족회관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사회는 김 모이세이 고려인연합회 고문단 의장과 이사코바 굴나라 모스크바시립 민족회관 부회장이 함께 맡았으며,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화상 채팅 플랫폼인 줌(ZOOM)을 이용해 원격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주최 측은 행사 개최 배경에 대해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소련은 당시 사망자수가 2,000만명 이상일 정도로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행사는 고려인 동포들의 러시아에 대한 헌신을 되새기고 자라나는 고려인 동포 차세대에게 조상들의 업적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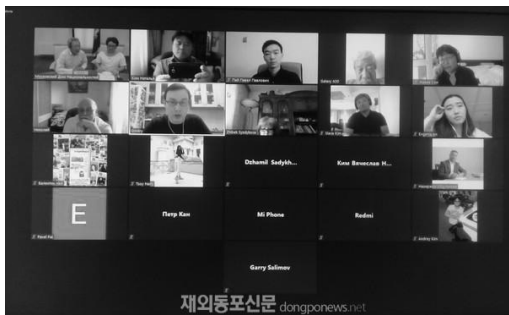
연사로는 부가이 니콜라이 교수, 송 잔나 교수, 김 슬라바 고려인연합회 회장, 텐 발렌틴 고려인신문 편집장, 김 로베르트 김병화재단 이사장, 파이 파벨 소련 영웅 후손, 샤드 이코프 자필 러시아 언론조사 연구원, 김원일 모스크바대 국제관계학박사 등이 참가했다.

부가이 니콜라이 교수는 2차대전 당시 고려인 동포들의 전투 참가와 노동력 제공에서 기여한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독소전쟁에서 큰 의미를 가졌던 크림 방어전에서 고려인 동포들의 영웅적 투쟁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선보였다.

김 로베르트 회장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전설적 노동영웅 김병화 선생을 중심으로 한 고려인 동포들의 전쟁 전후시기의 생산력 향상의 성과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샤드이코프 자필 연구원은 2차대전 전후 과정에서 고려인 동포들의 영웅적 업적들을 실었던 소련 언론들을 연구 분석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송 잔나 교수는 대표적인 고려인 동포지도자들의 업적



전(全) 러시아 고려인연합회는 6월 17일 '대조국전쟁(세계 2차대전) 시기 고려인동포들의 참전과 노동협력'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화상 채팅 플랫폼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 장면 (사진 모스크바프레스)

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또 2차대전 당시 소련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것은 전선을 위하여! 모든 것은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전쟁 승리를 위해 헌신했고 그중에 고려인 동포들의 업적은 다른 민족들을 능가했다고 평가했다.

2차 세계대전에는 약 400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직접 참전했다. 그중에는 모스크바 방어전, 레닌그라드 방어전에 참전해 공을 세운 경우도 있었고 독일군 점령지에서 비밀 게릴라활동을 전개한 경우도 있었다.

독소전쟁의 승패를 갈랐던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전투 그리고 역사상 가장 대규모 전차전이 벌어졌던 쿠르스크전투 심지어 베를린 진공작전에 직접 참여한 고려인 동포도 있었다. 발표자들은 각 전투에 참여한 고려인동포들의 숫자와 업적들 그리고 영웅적 활동으로 훈장들을 받은 고려인동포들의 이름들을 일일이 밝히는 등 학술적인 열정을 선보였다.

행사에 참여한 김원일 박사는 "2차대전 당시 고려인 동포들의 전투 참가와 후방전선에서의 지원 활동들에 대해서 자세한 발표가 이루어져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한국연구기관과 학자들이 구소련 시대 고려인 동포들의 활동과 업적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우리말로 깨닫다]

리을 이야기

리을 음은 우리말 첫소리에서는 회피하는 음입니다. 두음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리을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리을 음을 첫소리에서 안 쓰려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리을 음을 'R, L'로 구별까지 하니 한국인에게 가장 어려운 음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우리말에도 리을로 시작하는 어휘가 있습니다. 이 어휘는 대부분 외래어입니다. 라면이나 라디오, 리본 같은 말이 대표적이겠네요. 너무 많이 써서 이제 '라면' 같은 말은 우리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 조금 엉뚱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리을로 시작하는 순우리말을 찾아본 겁니다. 찾아보나마나 실패할 조사였습니다. 두음법칙이 있는 우리말에서 리을로 시작한다는 것은 외래어라는 말이고, 그것은 순우리말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조사였지만 그 김에 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까지 찾아보았을 때 한 단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였을까요? 바로 '리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리을(梨乙)도 한자로 표기가 가능합니다만, 이는 어쩔 수 없이 표기했던 것이지 한자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리을이라는 글자는 리을이라고 할 때 새 '을(乙)'자와 닮아 있습니다. 한자를 참고했다면 분명히 새 을을 참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을이라는 한자에도 새 을이 들어가 있네요. 글자 이름을 만들 때도 아마 고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리을은 글자의 모양처럼 굽이굽이 흘러가는 느낌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 중에는 리을을 기억에서 시작하여 니은으로 끝나는 음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자가 기억과 니은을 합쳐놓은 느낌이기도 하죠. 발음을 해 보면 더욱 그런 느낌이 납니다. 기억 발음을 하려는 혀 모양처럼 입천장 쪽에서 시작하여 니은 발음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니은과 리을은 혀의 위치가 비슷합니다.

우리말에서 리을은 첫소리보다는 끝소리에서 매력적입니다. 리을은 울림소리면서 유음(流音)입니다. 흘러가는 음이죠. 리을은 글자 모양도 그렇게 생겼지만 굴러다니거나 흘러가는 느낌을 줍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굴러가고, 돌아가고, 올라가고, 끝없이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살아있는 거죠. 술술 바람이 불고, 이야기가 술술 나오고,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이 아닌가요?

흥미로운 리을은 고려가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려가요를 보면 후렴구에 알 수 없는 소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산별곡에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가 대표적이죠. 여기에도 리을 음이 잔뜩 보이네요. 이 후렴구는 대국(大國)이라는 고려가요에도 '알리알리알라 알랑성 알라'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대국은 무가(巫歌)입니다. 무당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고려가요에는 무가가 많습니다. '나례가(儺禮歌)'의 경우에는 아예 후렴구가 '리라리러 나라리 리라리'입니다. 나례가는 무당이 역귀를 쫓기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무가에서 리을 음이 보여주는 강력한 주술적 힘이라고나 할까요? 대왕반(大王飯)에는 '디러렁 다리 다리러 디러리'가 나오고 내당(內堂)에는 '다로림 다리러'가 후렴으로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황반(城隍飯)이라는 고려가요인데, '다리러 다로리 로마하 디렁디리 대리러 로마하 도람 다리러 다로림 디러리 다리렁 디러리'로 긴 후렴구가 나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군마대왕(軍馬大王)이라는 고려가요입니다. 군마대왕은 아예 가사가 없이 전부 주술적인 소리로만 이루어집니다. '리러루 러리러루 런러리루, 러루 러리러루, 러러루 리 러리로, 로리 로라리, 러리러 리러루 런러리루, 러루 러리러루, 러러루리 러리로' 구음(口音)으로 보는 연구가 많고, 현악기의 소리일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구천(九天)이라는 무가도 '리로 리런나 로리라 리로런나 로라리 리로리런나 오리런나 나리런나 로런나 로라리로 리런나'로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오히려 무가라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신이 들렸을 때 마치 방언(方言)을 하듯이 내는 주술적인 소리를 담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리을 음은 흘러가는 음이기는 하지만 강력한 힘을 담고 있는 특별한 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Экологические акции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продолжатся. Принять в них участие с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О месте и времени их проведения будет сообщено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 группе «Мой Корсаков»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сообщает районн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아쿠아 시티"수영장 이용 가능

유즈노사할린스크 종합 수중재활 수영장 50m구간 개장에 사할린 주민들을 초대한다.

이제 수중 스포츠 시설을 매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 지침 사항과 관련하여 방문자 수를 제한하도록 했으며 시설 이용에 최대 수용 인원의 50%만이 이용할 수 있다."고 수중 스포츠 종목학교 예브게니 사프로노브 교장대행이 전했다.

방문자를 위한 규정으로는 수심 2-2.3M의 10개 코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는 19시부터 22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수영장 방문 시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해야 하며 또한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따라 방문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구에서 체온 측정을 요한다.

입장은 각 회기마다 45분씩 나누어 시행한다. 수영장 이용 비용은 시민들의 부류에 따라 변경된다고 사할린주 체육부 홍보실이 전했다.

Бассейн «Аква Сити» будет доступен для свободного посещения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заниматься плаванием в 50-метровом бассейне вод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портивный объект будет доступен для свободного посещения ежедневно.

— Количество посетителей мы вынуждены ограничить в связи с рекомендациями относительно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Сможем одновременно обслуживать 50% от максимально возмож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человек, — рассказывает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директора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Евгений Сафронов.

В распоряжении посетителей 10 дорожек глубиной от 2 до 2,3 метра. Посетить бассейн в будние дни можно с 19:00 до 22:00, в выходные и праздники с 8:00 до 22:00. Для посещения бассейна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медицинскую справку. Также в целях соблюдения мер п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сетителей просят приходить в масках и измерять температуру на входе.

Вход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по сеансам,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каждого по 45 минут. Стоимость посещения варьиру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категории граждан,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Выражаем глубокие и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семье почетного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щества разрозн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Ли Су Дина в связи безвременной кончиной невестки Лены. Скорбим вместе с вами, искренне сопереживаем всей семье..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бщество разрозн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이수진 명예회장의 며느리 박화순 씨가 모스크바에서 사망하였음을 부고하며 비애에 젖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사할린주한인노인회**

전 새고려신문사 상급 기자인 이복순 님의 며느리 박화순(알료나) 씨가 2020년 7월 14일 52세를 일기로 중환으로 모스크바에서 사망하였음을 부고하고 비애에 잠긴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고려신문사
전 및 현 사원 일동**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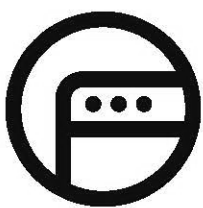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	---	--	---	---	--